

3·1 운동, 죽음과 희생의 민족서사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한국근대사 전공
kji@cnu.ac.kr

- I. 머리말
- II. 집단학살에 대한 기념과 기억
- III. 거룩한 죽음, 열사의 탄생
- IV. 맺음말

I. 머리말

3·1 운동에 대한 찬양은 3·1 운동의 희생자에 대한 숭배이기도 하다. 3·1 운동은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조선총독부에 따르면, 1919년 3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사망자 수는 405명¹⁾이다. 또 다른 기록들을 살펴보다라도, 식민통치자로서 조선총독부의 희생자 기록의 최대치는 600여명 정도이다. 반면,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사료편찬회가 편찬한 『한일관계사료집』과 박은식이 1920년에 출간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는 희생자 수를 각각 6,821명, 7,509명으로 집계했다.²⁾ 조선총독부 측 통계의 10배를 훌쩍 넘는 수치이다. 이 간극이 어디로부터 연유한 것인지는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의 통계대로 3개월여에 걸쳐 일어난 만세시위에서 수백 명이 죽음에 이르렀다면,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것이 분명하다. 그만큼 경찰과 헌병, 나아가 군대까지 동원한 강도 높은 탄압이 자행된 셈이었다.

3·1 운동으로 수만의 사람들이 검거되었고, 수천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3·1 운동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이 사실은 매우 중요했다. 3·1 운동에서의 죽음과 희생은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이었다. 이와 같은 3·1 운동에서의 죽음과 희생의 서사는 상징적인 사건과 인물을 통해 완성되었다. 바로 제암리 학살사건과 유관순이다. 제암리 학살사건은 사건 직후 서양인들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어 세계에 3·1 운동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국내의 한국인에게는 일본의 집단학살에 대한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유관순은 해방 직후부터 3·1 운동의 저항과 희생을 상징하는 아이콘을 부상하면서 3·1 운동은 물론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열사로 추앙받았다. 그리고 오늘날 제암리 학살과 유관순의 죽음은 민족의 희생을 상징하는 민족서사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제암리 학살과 유관순의 죽음에 대한 민족서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껏 분석되지 않았다.

1) 「조선소요사건에서의 사상자 수의 건 보고(1919년 9월 29일)」, 『現代史資料』 26(みすず書房, 1967), 321-327쪽(김승태, 「3·1 운동과 일본군의 한인 학살」, 『제노사이드와 한국근대』(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09), 128-131쪽에서 재인용).

2)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한일관계사료집』 7(2005), 741쪽;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소명출판, 2008), 198쪽.

한국인 모두가 제암리 학살사건을 기억하고 유관순의 희생을 추앙하는 흐름은 언제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이를 새삼 되짚는 것은 특정한 사건과 특정한 인물이 민족서사를 대표하면서 그것에 대한 반응이 반일의 집단정서로만 귀결되는 현실을 환기하기 위함이다. 사실상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일본의 무자비한 폭력의 결과가 수많은 한국인의 죽음과 희생을 낳았다는 인과성만이 강조되어왔다.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제는 3·1 운동의 희생자들을 한국인이라는 집합 주체가 아니라, 한 개인의 삶, 한 사람의 죽음과 희생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며 오늘날 나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성찰하는 공감의 역사를 모색할 때이다. 제암리 학살 사건의 희생자 29명과 유관순의 죽음 역시 개인화·인간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지금 여기’ 나와와 보편적 공감 지대를 넓힌다면, 기념관과 열사라는 외형적인 기억과 기념을 넘어 심리적 동일시(psychological identification)³⁾에 근거한 현재적·내면적인 기억과 기념의 재구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19년과 오늘을 잇고자 3·1 운동의 죽음과 희생을 개인화·인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억과 기념의 현재화·내면화의 단계로 나아가기에 앞서 지난 100년간 제암리 학살 사건과 유관순의 죽음이라는 민족적 희생 서사가 형성되어온 과정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II. 집단학살에 대한 기념과 기억

1. 서양인에 의한 제암리 학살 사건 발견과 전파

3·1 운동 과정에서 단일 만세시위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곳은 평안북도 정주군이였다. 1919년 3월 31일에 일어난 정주면 만세시위에서 헌병과 경찰이 쏜 총에 100여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다.⁴⁾ 이에 비해 1919년 4월 15일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 제암리에서 일어난 학살은 3·1 운동 당시 일본 군대가 자행한 집단학살을 대표적인 사건이다.

3) 제프리 C. 알렉산더, 박선웅 옮김, 『문화사회학』(한울아카데미, 2007), 71쪽.

4) 국사편찬위원회(2005), 앞의 책, 567-568쪽.

1919년 3월 31일 향남면 발안리 장터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사흘 후인 4월 3일에는 수원군의 장안면 수촌리와 우정면의 화수리에서 만세시위를 벌인 시위대가 면사무소를 습격했다.⁵⁾ 이에 대한 군인들의 보복은 가혹했다. 일본 육군 보병 79연대 소속 군인들은 수촌리와 화수리에서 방화를 하고 200명이 넘는 사람을 검거했다. 보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리타(有田俊夫) 중위가 지휘하는 군인들이 4월 13일 발안리에 나타나 3월 31일 만세시위 관련자를 체포했다. 이틀 후인 4월 15일에는 제암리에 들어와 15세 이상의 남성들을 제암교회에 가둔 후 총을 쏘고 불을 질렀다. 교회 안에서 19명, 밖에서 4명이 죽었다. 군인들은 다시 건너 마을인 팔탄면 고주리로 가서 주민 6명을 총살했다. 이날 학살로 희생된 사람은 모두 29명이었다. 그 중 기독교인은 12명, 천도교인은 17명이었다.⁶⁾

이 끔찍한 학살은 다음날 이 마을을 지나는 미국 커티스 영사 일행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다. 1919년 3월 1일 이후 만세시위가 이어지면서 한국 땅에 거주하던 서양인들은 군인과 경찰의 비인도적 탄압에 대해 듣고 보았다. 그들은 본국 정부와 선교회에 그 참상을 알리기 위해 보고서를 썼다. 그리고 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항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각국 정부는 서울에 주재한 영사관들을 통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서울 주재 미국총영사인 버그홀쯔(L. A. Bergholz)는 커티스(R. S. Curtice) 영사에게 마을은 소실되고 주민은 학살되었다고 하는 소문이 도는 수원지방 일대의 상황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노블(W. A. Noble)을 비롯한 선교사들도 이러한 소문에 대한 진상 확인과 대책을 요구한 바 있었다.⁷⁾ 1919년 4월 16일 커티스는 미북장로회 선교사 언더우드(H. H. Underwood), AP통신 서울 특파원 테일러(A. W. Taylor), 테일러의 운전수인 중국인 임씨와 함께 조사에 나섰다. 언더우드는 동행인들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직접 운전했다. 한국어 통역도 그의 몫이었다.

커티스 영사 일행은 수원군 향남면 발안리 장터를 눈앞에 둔 곳에서

5) 이덕주·김형석, 「3·1 운동과 제암리사건」, 『한국기독교와 역사』 7(1997), 48쪽.
 6) 현재는 희생자 수에 관해 29명이 통설이나, 여러 이견이 존재하므로 확정하기는 아직 곤란하다(이덕주·김형석(1997), 위의 논문, 65쪽; 박환, 「경기도 수원·화성의 3·1 운동 관련 학살유적과 평화적 활용 방안」, 『근현대 전쟁 유적 그리고 평화』(동북아역사재단, 2011), 164-169쪽).
 7) 김승태, 「제암리교회 사건과 서구인들의 반응」,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7권(1997), 105쪽.

잠시 멈춰 점심을 먹었다. 그러다 저 멀리 수원군 향남면 발안리 장터에서 1킬로미터쯤 떨어진 나지막한 언덕 뒤에서 연기가 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언더우드가가 가까운 민가들을 방문해 탐문했다. 주민들은 곳곳에서 일본군의 학살이 자행되고 있어 장터는 물론 집에서 멀리 떨어진 밭에도 안 가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눈앞의 연기는 전날인 4월 15일 오후부터 제암리 방면에서 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렇게 커티스 영사 일행은 끔찍한 제암리 학살 사건 현장을 우연히 발견했다. 제암리를 찾아가 학살 현장을 살핀 커티스 영사는 4월 21일 버그홀쯔 총영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4월 23일 버그홀쯔 총영사는 미국 국무장관에게 「일본군이 교회 안에서 한국인 37명 학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5월 12일에는 이를 수정 보완한 「제암리에서의 일본군에 의한 한국인 37명 학살과 촌락 파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⁸⁾ 버그홀쯔는 여기서 제암리 학살 사건이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민중에 대한 학살 사건으로 정의했다.⁹⁾

4월 16일 커티스 영사 일행이 제암리 학살 사건 현장을 다녀오면서 그 참상이 알려지자 영국과 프랑스 영사관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영국 영사관에서는 4월 18일에 현장 조사를 다녀와 곧바로 조선총독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다음날인 4월 19일에는 로이즈(W. M. Royds) 영사가 직접 캐나다 출신 선교사 하디(R.A.Hardie)와 게일(J.S.Gale), 일본 도쿄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인 《저팬에드버타이저》의 특파원, 이 지역의 감리교 감독인 노블, 케이블(E. M. Cable), 빌링스(B. W. Billings), 벡크(S. A. Beck), 스미스(F. H. Smith)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주일 영국대사관에 보고했다. 이 보고를 받은 주일 영국대사 그린경(Sir C. Greene)은 5월 5일 자로 영국 외무성에 제암리 학살 사건에 대해 보고했다. 주일 영국 대리 공사 얼스톤(B. Alston)은 일본 외무차관인 시데하라(幣原喜重郎)를 찾아가 학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프랑스 영사관에서도 주서울 부영사인 갈루아(M. E. Gallois)가 1919년 5월 20일에 일본에 있는 주일 프랑스 대사인 바스트(Bapst)와 프랑스 외무장관 뵘송(Pichon)에게 영국과 미국 영사관의 보고서와 영자 신문의 보도를 토대로 제암리

8) 김승태, 위의 논문(1997), 101-102쪽.

9) 신효승, 「일제의 '제암리 학살사건'과 미국 선교사 기록의 형성 과정」, 『학림』 제31권(2018), 198쪽.

학살 사건에 대해 보고했다.¹⁰⁾

한편, 선교사들은 본국에 있는 선교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익명으로 영자신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데 힘썼다. 버그홀츠와 같은 외교관과 달리 선교사들은 제암리 학살 사건을 교회라는 공간에서 기독교인을 포함해 일어난 학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의 만세시위부터 사진에 담았던 선교사 스코필드(F. W. Schofield)는 4월 17일에 제암리 학살 사건 소식을 듣고 다음날인 4월 18일에 제암리로 찾아가 현장 사진을 찍고 「제암리의 대학살 보고서」를 남겼다. 한편 수촌리에서의 학살에 관해서도 「수촌리 학살 사건 보고서」를 남겼다. 그는 이 보고서들을 비밀리에 선교본부에 보냈고 중국 상하이에서 발행되던 「상하이 가제트」 5월 27일 자에 익명으로 ‘수원 제암리 대학살’과 ‘수촌의 연소’라는 제목을 단 기사들을 게재했다.¹¹⁾

제암리 학살 사건에 대한 최초의 영자신문의 보도는 일본 고베에서 발행되던 《저팬크로니클》 4월 20일 자에 실린 ‘수원 대학살’이라는 제목의 간략한 기사였다. 이 신문은 4월 29일 자에도 ‘쇼킹한 만행, 한 기독교 예배당에서 대학살’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5월 3일 자에서는 ‘팔탄면 대학살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언더우드의 주민면담 보고서를 상세히 인용해 보도했다. 영국 영사와 함께 제암리 현장을 방문했던 《저팬애드버타이저》 특파원은 4월 24일자로 소식을 전했다. 서양 언론으로는 ‘뉴욕타임즈’가 처음으로 서울발 AP통신을 인용 보도해 제암리 학살 사건을 보도했다.

일본군 한국인 학살 일본 총독부 기독교인 살해 및 교회 방화 보도 진상 조사 중 서울. 4월 23일(AP) 조선총독은 일본군이 서울 동남방 45마일의 촌락에서 남성 기독교인을 교회에 모이게 한 후 총살하고 대검으로 찢러 무참히 죽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진상을 조사 중이다. 또한 일본군은 만행 후 그 마을의 교회와 그 밖의 건물들을 불태워 없앴다고도 한다.¹²⁾

3·1 운동을 처음 알린 서양 언론도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10) 신호승(2018), 위의 논문, 102-103쪽.

11) 김승태, 「『저팬 애드버타이저(The Japan Advertiser)』의 3·1 운동 관련 보도」, 『한국 독립운동사연구』 제54권(2016), 166-167쪽;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이항·김제현 엮음, 『기록과 기억을 통해 본 프랭크 스코필드』(호랑이스코필드기념사업회·한국고등신학연구원, 2016), 120-128쪽.

12) 김승태, 앞의 논문(1997), 11쪽에서 재인용.

였다. 1919년 3월 13일 자에 12일자로 베이징에서 보내온 기사를 실었다.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이는 예상 밖의 일로, 일본 관헌은 돌발적 사태에 당황했으나 곧 강경하게 진압하기 시작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다.¹³⁾

그런데 서양의 각국 정부는 제암리 학살 사건에 대해 일본과 외교적인 마찰을 일으키지 않았다. 1차 세계 대전을 마무리 짓기 위해 1919년 1월부터 6월까지 파리강화회의가 열렸다. 서양 열강과 일본이 함께 한 이 협상 테이블에서 제암리 학살 사건을 비롯한 3·1 운동 탄압 과정에서 드러난 잔학상은 일본 대표를 압박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처럼 제암리 학살 사건은 서양인에 의해 발견되었고 세계에 알려졌다. 세계는 제암리 학살 사건을 통해 3·1 운동을 접했다.¹⁴⁾ 한국에 사는 서양 외교관들과 선교사들은 무엇보다 ‘일본이 야만적인 일을 저지렸다.’는 시선으로 제암리 학살 사건을 바라봤고 서양에 알렸다. 제암리 학살 사건에서 어떤 개인들이 희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2. 독립운동, 반일 프레임으로 학살을 보다.

타자만이 제암리 학살 사건의 희생자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다. 독립운동에 있어 제암리 학살 사건은 일본의 잔혹한 탄압을 폭로하는 강력한 무기였다. 그래서인지 역시 어떤 개인이 희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희생자 모두 ‘몇 명’이라는 집합명사로 표기되었다. 그나마 일제시기에 희생자의 이름이 공개된 적이 한 번 있었다. 천도교 기관지였던 《천도교회월보》 1926년 11월호에 실린 「천도교 수원교구 약사」에서는 “동년(1919년: 필자) 4월 15일에 본구(수원교구: 필자) 관내 향남면 제암리 전교사 안중환 외 김홍렬, 김기훈, 김기영, 안경순, 김성렬, 홍순진, 안중린, 김기세, 안응순, 안상용, 안정옥, 안중정, 안중화, 김세열, 안자순, 안호순 제씨는 그곳 즉 야소교당에서 무고히 교(敎)의 혐의로 소살(燒殺)을 당하고 곳곳마다 심한 고초에 있었다.”¹⁵⁾라고 해서

1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1971), 806쪽.

14) 박환(2011), 앞의 논문, 163-164쪽.

15) 「천도교 수원교구 약사」, 《천도교회월보》, 1926년 11월호, 30쪽.

고주리에서 죽은 6명과 제암리에서 죽은 11명의 명단을 밝혔다. 특이할 만한 것은 이 문장에는 ‘누가 죽였는가’라는 가해의 주체가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에서는 제암리 학살 사건을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제암리 학살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뜻은 국외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에 맡겨졌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8월에 내놓은 『한일관계사료집』에서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는 항목을 두어 사건 정황과 이에 대한 일본 측의 거짓 변명을 다뤘다.¹⁶⁾ 박은식은 이듬해에 내놓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한일관계사료집』에 등장하는 일본의 거짓 변명을 빼고 당시에 있었던 몇 가지 학살 사례를 덧붙여 ‘수원 제암리의 학살’이라는 항목을 썼다. 첫 머리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왜놈들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학살을 자행하지 않은 곳이 없다. 우리 민족은 만감을 두고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수원 지방의 참극은 더욱 차마 말할 수 없다.¹⁷⁾

그리고 제암교회에서 일어난 비극을 설명한 데 이어 “홍모리는 사람은 상처를 입은 채 창문을 넘어 달아나다 왜병에 의해 사살되었다. 강모의 처가 그 시체를 이불로 싸서 담 아래 숨겨놓았는데 왜병이 이를 칼로 베고 덮은 이불에 불을 질러 태워버렸다. 불을 끄려고 왔던 홍씨 부인도 바로 사살되었으며 어린 아이 두 명도 죽임을 당했다.¹⁸⁾”와 같이 끔찍한 학살을 소개하고 있다. 가해자이자 학살자로서의 일본의 탄압에 초점을 맞춘 서술이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서양인에 의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제암리 학살 사건을 국제 외교 무대에서 쟁점화해 일본의 만행을 폭로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했다. 임시정부를 대표해 1919년에 유럽에 파견되었던 조소앙은 1920년 4월 영국 하원에서 제암리 학살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1919년 3월에 일본군이 한국 수원 제암리에서 무고한 30여명을 학살한 일에 대해 한국 주재 영국 영사로부터 어떠한 보고를 받았으며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영국 외무차관은 일본 정부가 징계를 했다는 말만 전할 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¹⁹⁾

16) 국사편찬위원회(2005), 앞의 책, 570-573쪽.

17) 박은식(2008), 앞의 책, 230쪽.

18) 박은식(2008), 위의 책, 230-231쪽.

19) 「한국사정과 브리튼 정부」, 《신한민보》, 1920년 6월 1일자; 「구주로부터 귀한 조소앙

1921년에 열린 워싱턴회의에 제출된 임시정부의 독립청원서에는 ‘학살과 잔해(殘害)’라는 제목을 단 항목이 있었다. 여기서는 제암리 학살 사건 등을 사례로 일본의 학살을 비판했다.

1919년 3월로부터 동년 8월말까지의 반 년 간 통계는 공연히 증명된 것으로만 살해된 자가 7천 8백인이요 상해된 자가 4만 6천여 인이라. 할인 잘하는 일본인은 160여 처의 폭동에 13만 8천인 난민(亂民) 중에 우연히 사상자가 750인이라 보고하다. 수원 제암리의 한 마을 30여인을 기독교당에 유집하고 전부 소살한 일은 학살한 실례 중 하나이며 일본 관민이 협력하여 혹 죽창으로 자살(刺殺)하여 내장을 기현(旗顯)하며 혹 철구로 타살하여 시체를 예거(曳去)하는 등 참극학극한 야만행위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학살된 자에는 자주력을 가진 장정뿐 아니라 저항력이 없는 부인과 어린이가 많으니라.²⁰⁾

워싱턴회의가 끝난 직후에는 미국의 한인자치단체인 대한인국민회의 기관지인 《신한민보》가 제암리 학살 사건과 같은 학살만행을 저지르는 일본을 원수라고 쓴 논설을 게재했다.

독립운동 중에 우리의 사상 수는 상세히 조사하지 못하여 그 실수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믿음만한 경성 통신원에 보고에 의하며 3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1개월 동안에 시위운동 중에 왜병과 왜경의 총검에 맞아 죽사한 자 3,850명이요 중상하였다가 며칠 후에 죽은 자 4,600여명이요 옥중에 들어갔다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자가 수십 명이요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간 자 수십만 명이라 하니 그 나머지는 가히 미루어 알겠도다. 이 밖에 수원 제암리의 학살 사건과 정주·맹산·강서 등지의 참살을 입으로 차마 말하지 못하겠으며 손으로 차마 쓰지 못하겠으며 어느 의인의 기록한 바에 의하면 천명이 회집하였으면 7, 8백 명이 사상이 난다하며 어떤 적은 촌락에서는 한 주일 동안에 참살 당한 자가 107인이요 감옥이 파괴된 것인 15처라 하니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이 원수를 어찌 잊으며 일월이 변할지언정 이 원한을 어찌 씻으리오.²¹⁾

이와 같이 일본의 학살을 폭로하고 비판하면서 일본의 식민통치의 부당함을 주장할 때, 제암리 학살 사건은 늘 소환되는 기억이었다. 흥미로운 건, 아시아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국 하와이에서 발행되던 《국민

씨의 답」, 《독립신문》, 1922년 2월 20일자.

20) 「태평양회의에 제출한 대한민국의 요구(4)」, 《독립신문》, 1922년 3월 31일자.

21) 「독립운동대역사」, 《신한민보》, 1922년 3월 2일자.

보)가 제암리 학살 사건을 중일전쟁에서의 일본군의 학살, 독일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과 비유하며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의 승전으로 원수를 갚자는 주장을 펼친 점이다.

왜병이 중국 남방에서 퇴진할 시에 그 동리에 청년·유아 2만 1천명을 총살하였다 하며, 히틀러에게 정복당한 국가 백성은 항거하다가 진촌락이 전멸을 당하였다. 한국 수원 제암리 역시 만세 당시에 전멸을 당하였다. 우리 부모를 살육하고 아내와 여자를 강간 도륙한 것을 우리가 목도하였다. 원동의 왜적이 앙금할 날이 언제나 올라하고 32년 동안 붉은 정신 빈주먹으로 원수를 대항해왔다.²²⁾

즉, 제암리 학살 사건을 침략국의 학살과 동렬에 놓으며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우리의 입장에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야 할 정의의 전쟁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이 ‘원수’를 갚고 독립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3. 해방 이후 제암리 학살 사건의 기념 과정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제시기부터 제암리 학살 사건이 ‘일본이라는 원수가 저지른 만행’이라는 프레임을 확고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이미 잘 알려진 제암리 학살 사건은 해방 직후 첫 번째 역사교과서로서 진단학회가 펴낸 『국사교본』에 실렸다.

일본은 군대로써 이를 누르려 할 새 여러 곳에서 민중과 충돌하여 다수한 사상자를 내었거니와 더욱이 수원군 향남면에서는 일병의 방화와 발포로 잔인을 극한 학살이 있었다.²³⁾

그런데 제암리 학살 사건이 오늘날과 같은 민족서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러 번의 정치적 굴곡을 거쳐야 했다. 먼저, 해방이 되자마자 제암리 학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움직임이 수원 지방의 좌익세력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들은 3·1 운동제암동회생자건비위원회(이하, 건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제암리 학살 사건을 기념하는 비석의 건립을 추진했다. 마침내 1946년 4월 16일에 민주주의민족전선 수원위원회를 비롯한 사회

22) 「승전부세」, 《국민보》, 1942년 9월 16일자.

23) 진단학회 편, 『국사교본』(군정청문교부, 1946), 172쪽.

단체 대표 및 유가족 500여명이 모여 제암리에 '3·1 독립운동기념비'를 세우는 행사를 치렀다. 비석의 뒷면에는 월북시인인 박세영이 짓고 서예가 이주홍이 쓴 다음과 같은 추모시가 새겨졌다.²⁴⁾

비바람 지나간 지 스물여섯 해 / 두렁바위 들꽃엔 이슬이 방울방울
불에 타고 총칼에 쓰러진 / 임들의 한 맺힌 뉘이드노.
조국을 찾으려던 장한 그 뜻 / 이제 겨레의 산 힘 되었기에
왜놈은 망하고 인민의 나라 섰으며 / 거친 밤 촉새 되어 울던 노래 그치라.²⁵⁾

그런데 이 기념비를 수원의 좌익 세력이 주도해 세웠다는 이유로 1950년대에 국군이 철거하려 했다. 그러자 향남면 면서기가 추모시의 '인민'을 '한민'으로 바꿔 철거를 모면했다고 한다.²⁶⁾ 이러한 좌익 주도의 기념사업의 여파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병도는 1950년대부터 출간한 역사 교과서들에서는 제암리 학살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다.

제암리 학살 사건에 대한 기념사업은 1950년대 말 순국기념관을 짓는 운동으로 재기되었다. 향남면 3·1 운동순국기념관건립위원회가 조직되어 1959년 4월 22일에 하나의 탑과 하나의 비를 세웠다. 제암교회가 불탄 현장에 '삼일운동순국기념탑'과 '29인 선열기념비'를 건립했다.²⁷⁾ 순국과 선열이라는 개념으로 제암리 학살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1965년 6월 한일협정이 체결되고 제암리 학살 사건은 다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일본인들이 제암리에 속죄의 마음으로 다시 교회를 짓겠다는 운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국교 재개로 왕래가 가능해지면서 오야마(尾山命仁) 목사 등 일본기독교해외선교회 관계자들이 1965년 10월에 제암리 학살 사건 현장을 찾았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일본 기독교인들이 제암교회방화상해사건속죄위원회(이하, 속죄위원회)를 결성하고 제암교회 신축 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했다. 제암교회는 1919년 4월 15일에 불탄 후 그 해 7월에 자리를 옮겨 새로 지었다. 1938년에는 기와집으로 다시 건립했다. 속죄위원회는 이 교회를 새로 짓겠다고

24) 「삼일운동제암동사건기념비 건립」, 《광주민보》, 1946년 5월 4일자.

25) 박환(2011), 앞의 논문, 184쪽.

26) 박환(2011), 위의 논문, 183-184쪽.

27) 박환(2011), 위의 논문, 184-185쪽.

3년 동안 1천만원을 모았다. 하지만, 유족들이 반대했다. 일본인에 의해 부모형제가 학살당한 교회를 일본인의 돈으로 다시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보다는 일본 정부가 나서 제암리 학살 사건에 대해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속죄위원회는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8년부터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이듬해 4월 15일에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후 속죄위원회와 유족 간의 대화와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일이 반복된 끝에 1970년 제암교회와 유족회관이 완공되었다.²⁸⁾

제암리 학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82년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가 불거졌을 때였다. 종교계가 나서 제암리 학살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일본이 속죄는커녕 2세에게 과거를 미화하는 교육으로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판하는 가운데,²⁹⁾ 전두환 정부는 제암리 학살 사건 현장을 정비해 국민교육도장을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억 원을 들여 1983년까지 제암교회 뒷동산에 순국지사 합묘를 만들고 기념비도 새로 세운다는 계획이었다. 정부는 먼저 제암리 학살 사건을 겪은 전동례, 최웅식 등 마을 노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1982년 9월 초부터 발안공동묘지 인근에서 유해 발굴 작업에 들어갔다.³⁰⁾ 발굴 현장에서는 유해와 총탄을 비롯해 1전 짜리 일본 동전·호주머니칼·도장통·마고자단추·램프걸이·못·숯·맥주병 조각 등이 발굴되었다.³¹⁾ 유해 발굴지에는 '제암리순국선열유해발굴터'라고 쓴 표석이 세워졌고, 9월 29일에 안장식이 거행되었다. 발굴된 유골은 제암교회 뒤편의 묘지에 안장되었으며 제암교회 일대는 사적 299호로 지정되었다. 기념관도 건립하고 '3·1운동순국기념탑'을 다시 세웠다. 이로서 제암리는 '민족수난의 역사를 증언하는 현장'³²⁾이 되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제암리 학살 사건은 기념의 대상일 뿐이었다. 기념의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진상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가해자인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는데 초점을 맞춘 기념만이 반복되었다.

28) 「일본은 정식 사과하라」, 《조선일보》, 1968년 3월 2일자; 「제암리 속죄교회 재건 좌절」, 《조선일보》, 1969년 9월 9일자; 「속죄의 교회 봉헌」, 《조선일보》, 1970년 9월 23일자.

29) 「일본교과서 왜곡 종교계도 규탄, 제암리교회서 학살된 29명, 누구의 만행인가」, 《조선일보》, 1982년 7월 30일자.

30) 「제암리 학살현장을 민족 수난 교육터로」, 《조선일보》, 1982년 9월 22일자.

31) 「일제 흉탄 박힌 유해 발굴, 63년 만에 제암리 학살 참상 드러나」, 《조선일보》, 1982년 9월 25일자; 「제암리 발굴, 29일 위령제」, 《조선일보》, 1982년 9월 26일자.

32) 「민족 수난 교육장으로 변모」, 《조선일보》, 1984년 3월 1일자.

이 무렵 화성군 출신의 교사이자 천도교인인 김선진이 10여 년 동안 제암리와 그 일대에서 증언을 채록하고 관계 문헌을 조사해 밝혀낸 제암리 학살 사건 진상을 담은 『일제의 학살 만행을 고발한다』라는 역서를 내놓았다. 그는 “일본군의 학살 진상 및 이 지방의 3·1 운동을 살펴봄으로써 비명에 가신 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³³⁾에서 책을 출간했다고 한다. 이처럼, 제암리 학살 사건의 진상 규명이 늦어지면서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희생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도 최소 22명부터 최대 37명까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³⁴⁾

한편, 국가적 기념사업이 시작되기 직전에 처음으로 생존자에 주목한 권의 구술집이 나왔다. 제암리 학살사건이 일어난 지 62년 만인 1981년의 일이었다. 제암리 학살 사건 현장에서 남편을 잃은 전동례가 여든 세 살의 나이에 그 때의 기억과 자신의 삶에 대해 얘기했다. “생각만 해두 분하구 원통해서 일본 사람들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그렇게 저렇게 살아 온 게 하루 이틀 살아 온 것 같”다고 회고했다.³⁵⁾ 학살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생존자들의 기억을 통해 학살과 그로 인한 희생의 의미를 되짚는 일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제암리 학살 사건에 대한 그와 같은 접근은 반세기를 훌쩍 뛰어넘은 후에 거의 생존자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생존자에 침묵한 세월이었던 것이다.

III. 거룩한 죽음, 열사의 탄생

1. 민족 통합의 아이콘으로서의 유관순의 발견

유관순의 죽음은 3·1 운동에서 희생당한 이들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유관순의 저항과 희생이라는 민족서사의

33) 김선진, 『일제의 학살 만행을 고발한다』(미래문화사, 1983), 11쪽.

34) 이계형, 「경기도 화성지역 3·1 운동의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학논총』 제50권 (2018), 497-498쪽.

35) 전동례 구술(김원석 편집), 『두렁바위에 흐르는 눈물』(뿌리깊은나무, 1981), 11쪽, 13쪽.

형성은 해방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일제시기에 유관순을 기록한 자료로는 지금까지 경성복심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알려져 있었다. 이에 따르면, 공주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은 유관순은 항소했다. 경성복심법원은 1919년 6월 30일에 원심을 기각하고 유관순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³⁶⁾ 유관순은 즉시 고등법원에 상고했으나, 1919년 9월 11일 고등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³⁷⁾

그런데,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또 다른 공문서에도 유관순이 등장한다. 1919년 7월 9일에 충남도장관인 쿠와바라(桑原八司)가 조선총독부에 민심의 동향을 조사해 보고한 문서가 그것이다.

천안군 동면 용두리 유관순 일가는 소요죄 및 보안법 위반으로 처분되어 일가가 거의 전멸하는 비참한 지경에 빠졌다.³⁸⁾

이러한 문장으로 시작해 유관순의 할아버지인 유윤기가 6월 16일에 사망한 후 집안에서 장례의식을 기독교식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전통식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했다는 사실을 적고 있다. 당국이 유관순 본인은 물론 오빠인 유우석은 구속되고 부모님은 시위 현장에서 죽음을 맞았던 비극적 사연이 민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유관순 일가를 예의주 시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유관순이란 이름은 없지만, 그녀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신문기사도 있다. 《신한민보》는 1919년 9월 2일 자에서 「천안시위운동의 후문」이라는 기사를 실어 병천 시위에서 3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전하며 특히 독립기를 든 기수와 김구옹과 그의 모친이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자세히 묘사했다.³⁹⁾ 그리고 이어 「한 이화여학생의 체포: 소녀의 양친은 원수에게 피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36) 경성복심법원, 「조인원 외 10명 판결문」(1919년 6월 30일).

37) 고등법원, 「조인원 외 10명 판결문」(1919년 9월 11일).

38) 「忠南騷秘第441號朝鮮總督府內秘補1370: 지방민심의 경향에 관한 건(1919년 7월 9일)」, 『대정8년 소요사건에 관한 도장관 보고철』 7-7.

39) 「천안시위운동의 후문」, 《신한민보》, 1919년 9월 2일자.

서울 이화학당 학생 000여시는 자기의 양친이 오랑캐 왜적에게 피살을 당하여 분기의 맘을 단단히 먹고 각처로 돌아다니며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왜적의 사냥개에게 발각되어 중상을 입고 왜적의 손에 붙들려 감옥에 피수하였더라.⁴⁰⁾

이 기사에는 인물과 지역을 특정하는 문구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화여학생이 유관순일 가능성은 높다.

조선총독부가 남긴 기록과 해외에서 발행된 신문의 기사에 등장했던 유관순이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과 희생의 상징하는 인물로 주목받은 것은 해방 직후인 1946년 가을이었다. 유관순이 3·1 운동의 상징 인물로 부상하게 된 출발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우선, 유관순을 가르친 이화학당 교사 출신인 박인덕이 유관순을 세상에 알렸다는 주장이 있다. 박인덕은 3·1 운동 당시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옆방에 갇힌 유관순으로부터 병천 시위에 앞장 선 일과 끝까지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얘기를 듣고 이 제자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그리고 1946년 가을 이화여자중학교 교장인 신봉선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는 것이다.⁴¹⁾

한편, 이 무렵 문교부 편수국에서 편수관으로서 국어 교과서를 만들던 전영택과 박창해가 유관순을 발굴했다는 주장도 있다. 박창해의 회고에 따르면, 둘은 외국 교과서를 놓고 얘기를 나누다가 프랑스의 잔 다르크와 같은 애국적인 여성을 발굴해 교과서에 소개하기로 결정했다. 박창해는 3·1 운동 때 이화학당 여학생들이 큰 활약을 했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이화학당의 후신인 이화여중을 찾아가 신봉조 교장을 만났다. 그런데 이화학당 학생으로서 만세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서명학 교감은 200여 명 참가자 중에 누구를 내세워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 때 마침 한글학회에서 파견을 나와 편수관으로 일하던 유제한이 집안에 만세시위를 주동하다가 옥살이를 한 이화학당 학생이 있음을 알려 주었다. 유관순의 사연을 들은 전영택은 교과서에 그녀의 죽음과 희생에 대해 넣을 것을 결정했다는 것이다.⁴²⁾

40) 「한 이화여학생의 체포」, 《신한민보》, 1919년 9월 2일자.

41) 「학생들의 희생을 줄여라」, 『아아 삼월』(동아일보사, 1971), 169-170쪽; 정상우, 「3·1 운동의 표상 '유관순'의 발굴」, 『역사와현실』 74(2009), 245-248쪽; 박인덕은 1954년에 미국에서 영어로 쓴 자서전인 『September Monkey』에서 서대문형무소 수감 중에 유관순을 만나 이야기를 썼다(박인덕 저, 최연화 외 역, 『구월원숭이』(인덕대학, 2007), 73-74쪽).

유관순의 발견과 관련해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지만, 둘 다 동시에 일어난 일일 수 있다. 전자의 사실에 대해서는 “처녀의 사실이 작년 10월경 처음으로 일부 식자 간에 알려진 후 유치녀의 모교인 이화여자중 학교를 위시한 유지들이 앞서 유관순기념사업회를 발기하고”⁴³⁾라는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자의 사실에 대해서는 전영택이 자신이 쓴 『순국처녀 유관순전』의 서문에서 유제한의 초고를 바탕으로 썼다는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1 운동에서의 유관순의 저항과 죽음은 1947년 3월 1일을 하루 앞둔 2월 28일자 《경향신문》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소설가이자 언론인인 박계주가 ‘이화여자고등여학교 학생으로서 고향에서 만세시위를 이끌었으며 옥중 독립만세 투쟁을 벌이다가 고문으로 옥사했다는 요지로 쓴 「순국의 처녀」가 실렸다.⁴⁴⁾ 박계주는 글 말미에 유관순의 오빠인 유우석에게 연락을 부탁하는 문구를 덧붙였다. 결국 유우석과 연락이 되었고, 1주일 뒤인 3월 7일자 《경향신문》에는 병석에 누운 유우석의 부인인 조화벽과의 인터뷰가 실렸다. 이에 따르면 유우석은 당시 독립노동당 당무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⁴⁵⁾

1947년 하반기에는 유관순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사업회가 발족했다. 모교 출신임을 적극 내세우고자 하는 신봉조와 서명학이 앞장섰다. 먼저 8월에 정인보, 최현배, 설의식, 장지영 등의 저명한 지식인들이 유관순기념사업회 발기위원으로 나섰다. 9월 1일에는 조병옥과 오천석을 명예회장으로, 이시영, 오세창, 조소양, 이청천을 고문으로 하는 유관순기념사업회가 창립되었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일본은 망한다. 절대로 절대로 망하고야 만다” …… 피문은 한마디를 남기고 눈을 감은 우리의 유관순. 그렇게 순국한지 삼십년 오늘에 일본은 자지러지고 조국은 일어섰다. 무수한 선열의 무덤 위에 조국은 일어섰다. 일어난 조국은 이제 그 때를 생각하고 그날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모였다. 이렇게

42) 박창해, 「나의 ‘국어 편수사’ 시절」, 『편수의 뒤안길』 8(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7), 60-62쪽; 유제한은 유관순의 조카로 해방 이후 한글학회에서 『우리말큰사전』을 펴내고 한글전용을 주장했던 한글학자였다.

43) 「억만인의 감읍, 불멸의 역사 한페이지, 후광찬연한 순국소녀 유관순」, 《조선일보》, 1947년 11월 27일자.

44) 박계주, 「순국의 처녀」, 《경향신문》, 1947년 2월 28일자.

45) 「조선의 잔 다르크 유양, 오빠도 현재 건국에 활약」, 《경향신문》, 1947년 3월 7일자.

모여서 마음에 새기며 느끼고 다시금 느끼어 그리운 정성을 남기고자 보람있는 기념사업을 마련하는 것이다.⁴⁶⁾

11월 말에는 유관순기념사업회 사무소를 유관순의 고향인 병천면에서 서울로 이전하고 조직을 개편했다. 명예회장은 조병옥, 회장은 오천석, 고문은 서재필, 이승만, 김구, 오세창, 이시영, 김규식, 위원은 정인보, 최현배, 장지영 등이 맡았다.⁴⁷⁾ 우파와 중도파를 아우르는 인맥이 유관순기념사업회에 관계했음을 알 수 있다. 해방되고 2년, 1947년까지 기념사업회가 결성된 인물은 안창호, 유관순, 이준이 있었다. 1947년 4월에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9월에 유관순기념사업회가, 11월에 일성이준선생기념사업회가 발족했다.

유관순기념사업회의 첫 번째 결실은 기념비 건립이었다. 1947년 11월 27일에 천안군 병천면 아우내에서는 유관순 기념비 건립 제막식이 열렸다. 제막식에서는 서울에서 내려온 이화여자중학교 학생들이 봉도가를 불렀고, 설의식이 추념사를 낭독했다. 김구와 이시영이 보낸 추모사는 대리낭독되었다. 유족을 대표해서는 1919년 4월 1일 병천시위에서 유관순과 함께 활약한 조인원의 아들로 경무부장으로 있던 조병옥이 연설했다. 이 때 제막식에 모인 사람은 1만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⁴⁸⁾ 그날 저녁 병천국민학교에서는 이화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순국처녀 유관순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⁴⁹⁾ 대부분의 신문이 이 날의 제막식에 큰 관심을 보이며 기사, 논설, 추모시 등을 내보냈다.⁵⁰⁾

1948년 3월 1일의 주인공은 단연 유관순이었다. 이 무렵에 전영택이 쓴 전기문인 『순국처녀 유관순』이 출간되었고 윤봉춘이 감독하고 이구영이 각색한 영화 ‘유관순’이 개봉되었다. 월간잡지 《영화시대》는 ‘유관순’

46) 「유관순 추념사」, 《영화시대》, 1948년 2월호, 47쪽.

47) 이화90년사편찬위원회, 『이화90년사』(이화여자고등학교, 1975), 111-112쪽.

48) 「유관순 외 21의사」, 《조선일보》, 1947년 11월 29일자; 「유관순양의 21의사, 기념비제막위령제」, 《독립신문》, 1947년 11월 29일자.

49) 「유관순의 밤, 극영화도 촬영 중」, 《조선일보》, 1947년 11월 29일자.

50) 「우리의 순국소녀, 유관순 기념비, 제막식 성황리 거행」, 《민중일보》, 1947년 11월 28일자; 「유혈(遺血)은 길이 남아 조선의 딸 유관순을 기념」, 《한성일보》, 1947년 11월 27일자; 「조선 독립에 몸을 바친 자유군 선봉 유관순 처녀 기념비 건립」, 《한성일보》, 1947년 11월 27일자; 「왜적 총검에 사라진 고 유관순양의 기념비 제막」, 《현대일보》, 1947년 11월 27일자; 「시, 모운숙, 영원히 빛나라 조선의 딸 유관순」, 《부인신보》, 1947년 11월 28일자; 「억만인의 감읍, 불멸의 역사 한페이지, 후광찬연한 순국소녀 유관순」, 《조선일보》, 1947년 11월 27일자.

을 특집으로 다뤘다. 연극 ‘순국처녀 유관순 혈투기’도 무대에 올랐다. 신문에 난 연극 광고는 다음과 같다.

조건 각색, 민당 연출, 김운선 장치, 임빈 조명
기미년에 피로 물들었던 독립운동을 기억하시는가!
16세의 처녀로 나라를 찾겠다고 일어난 유관순의 혈투기 의분과 감격의 혈투편
극단 황금좌, 3월 3일부터 수도극장⁵¹⁾

《영화시대》는 ‘편집후기’에서 ‘조국의 소녀의 위대한 존재’를 알리기 위해 유관순을 특집으로 다뤘다고 밝혔다.

우리가 프랑스의 잔 다르크는 잘 알고 있지만, 기미년 3월 독립을 위해서 나이 16세의 소녀의 몸으로서 한 손에는 봉화를 높이 들고 또 한손에는 태극기를 휘저으면서 조선독립만세를 힘차게 불렀었고 그리고 최후로 옥중에서도 역시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결국엔 무서운 왜적의 손에 가석하게도 전신을 여섯 토막으로 잘리어서 운명을 회사한 유관순양을 아는 사람이 그 누구인가? 전세계 방방곡곡 뒤지고 찾아봐도 전무후무의 찬연한 역사를 가진 조국의 소녀의 위대한 존재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될 것이다.⁵²⁾

영화 ‘유관순’의 제작자인 방의석의 제작 동기 역시 이와 같았다. 그는 1947년 2월 28일과 3월 7일에 《경향신문》에 난 유관순 관련 기사를 보고 병천을 다녀와 영화 제작을 결심했다고 한다. 잔 다르크는 알아도 유관순을 모르는 수치스러운 현실이 영화 제작에 나서게 했다는 것이다. 영화 제작은 언론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는데, 특히 병천에서 있었던 현지 촬영에는 유관순과 함께 만세를 불렀던 중장년의 이웃들이 당시 들었던 태극기를 갖고 나와 함께 촬영했다고 한다.⁵³⁾

해방 직후 누구도 3·1 운동이 전민족 항쟁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3월 1일을 전민족적으로 기념하지는 못했다. 1946년과 1947년의 3월 1일은 좌우익이 별도의 기념식을 개최했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유혈충돌이 일어났다.⁵⁴⁾ 긴장 속에 다시 1948년 3월 1일을 맞아

51) 「광고」, 《평화일보》, 1948년 3월 5일자.

52) 「편집후기」, 《영화시대》, 1948년 2월호, 145쪽.

53) 장근도, 「유관순전 병천로케감상기」, 《영화시대》, 1948년 2월호, 52-53쪽.

54) 임종명, 「설립 초기 대한민국의 3·1 운동 전용·전유」, 『역사문제연구』 제22권 제2호 (2009), 231쪽.

대중문화는 유관순의 저항과 죽음을 소환해 기억하고 기념했다. 유관순을 통해 일제시기의 고난과 전민족적인 희생의 의미를 읽고자 했다.

유관순은 여성이었고 더욱이 10대의 여학생이었다. 부모님은 만세시위 현장에서 죽음을 맞았고, 자신은 투옥되어 고문으로 희생되었다.⁵⁵⁾ 이와 같은 유관순의 삶은 식민지배로 인한 고통 속에 살았던 민족의 삶과 동일시되었다. 남북분단의 갈림길에 선 1948년 봄, 유관순에 관한 전기를 읽고 영화를 보고 연극을 감상하면서 염원한 것은 영화 '유관순'의 제작자의 말대로, "다같이 반성하고 참회해서 선열과 애국지사의 뜻을 받들어 삼팔선을 우리의 손으로 부수고 쓸데없는 고집을 버리고서 한테 뭉치자"⁵⁶⁾는 것이었다. 그것이 세상이 유관순에 주목하고 기념사업이 큰 관심을 받은 이유였다. 그렇게 해방 직후 민족적 고난을 대표하는 희생자로서 발견된 유관순은 분단의 갈림길에서 민족 통합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추앙받았다.

2. 유관순, 순국처녀에서 열사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유관순은 발견 순간부터 한국의 잔 다르크로 불리었다. 잔 다르크는 프랑스 백년전쟁의 영웅으로 해외에도 널리 알려져 인기를 누렸다. 일본에서는 19세기 후반에는 소개되었고, 1875년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잔 다르크는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지배를 겪는 나라에서 주목을 받았다.⁵⁷⁾ 한국에는 대한제국기인 1907년에 장지연이 신소설이라 붙인 『애국부인전』을 통해 잔 다르크를 소개했다.⁵⁸⁾ 여기에 등장하는 잔 다르크는 국민으로서의 여성이었고,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구국의 영웅이었다. 바로 그 구국의 여성상을 유관순에서 발견한 것이다. 그렇게 유관순은 한국의 잔 다르크, 즉 순국처녀로 표상화되었다.

유관순은 앞서 살펴보았지만 박계주에 의해 처음 소개될 때부터 순국처녀로 명명되었다. 1948년 초에 나온 중학교 1학년용 국어 교과서에

55) 정종현, 「유관순 표상의 창출과 전승」, 『1919년 3월 1일에 묻다』(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737쪽.

56) 방의석, 「유관순전을 제작하면서」, 《영화시대》, 1948년 2월호, 50쪽.

57) 김춘식, 「유관순과 잔 다르크 비교 연구」, 『유관순연구』 제8권 제8호(2006), 35-36쪽.

58) 장지연, 이재선 역주, 『애국부인전』(한국일보사, 1975), 9쪽.

실린 유관순 일대기의 제목도 '순국의 처녀'였다. 이 글의 지은이는 박계주였다. 형식과 내용은 《경향신문》의 것과 오류로 밝혀진 부분을 수정한 것 이외에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를레앙의 소녀 잔 다르크와 같이 밤을 밝혀 하느님에게 기도를 올렸다. “모든 사람은 오늘도 나서지 않습니다. 저로 하여금 하느님이여 조국을 위해 나서게 해주십시오. 조국을 위해 피 흘릴 수 있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영광을 입게 해주십시오”⁵⁹⁾

유관순의 순국, 즉 죽음에 대해서는 “매일 밤 아홉시만 되면 일으키는 만세 소동! 이에 대한 왜놈들의 복수는 관순의 육체를 여섯 토막에 쪼아서 석유 케찹에 담아놓은 것이었다.”라고 서술해 일본의 만행을 강조했다.⁶⁰⁾ 그런데, 윤봉춘의 영화 ‘유관순’은 그녀의 죽음을 더욱 참혹하게 재현했다. “관순은 드디어 자궁파열과 동시에 잔인무도한 처형으로 말미암아 절명되었다.”⁶¹⁾라고 쓴 대본처럼 유관순이 성고문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설정했다. 또한 유관순의 시체는 일곱 토막이 난 것으로 그렸다.

1948년 3월 1일에 맞춰 발간된 전영택의 『순국처녀 유관순』의 집필은 신봉조, 박계주를 비롯해 안정용, 박현석, 최홍국, 홍순의, 김규택 등이 유가족의 협력을 얻어 유관순전기간행회를 조직하고 ‘당국의 후원 하에 준비한 것이었다.’⁶²⁾ 전영택은 서문에서 유관순을 해방 후에 비로소 발견했으며 젊은 여성들과 여학생들에게 그녀를 알리고 싶어 전기를 쓴다고 밝혔다. 그를 통해 ‘관순의 빛나는 생애를 아는 데까지 전하여 건국정신을 힘있게 일으키고자’했다.⁶³⁾ 전영택이 건국정신을 언급했다면, 유관순기념사업회장으로서 이 전기의 서문을 쓴 오천석은 애국정신을 강조했다.

59) 임명순, 「유관순 열사의 아이콘」, 『유관순연구』 제22권(2017), 70쪽.

60) 김기창, 「교과서에 수록된 유관순 전기문」, 『유관순연구』 제17권(2012), 10쪽에서 재인용.

61) 윤봉춘 원작 이구영 각색, 『유관순』(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48-49쪽.

62) 「유관순전기 간행」, 《조선일보》, 1948년 2월 4일자; 「유관순전기발간준비도 진척」, 《한성일보》, 1948년 2월 5일자.

63) 전영택, 『순국처녀 유관순』(늘봄, 2015(수선사, 1948의 재발간)), 11-12쪽.

우리가 기미년 독립운동 당시에 십육 세 소녀 유관순이 깨끗하고도 굳센 애국정신을 가지고 용감스럽게 싸우다가 마침내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 순(殉:필자)한 사실을 가졌다는 것은 진실로 세계에 대한 우리의 자랑거리다.⁶⁴⁾

전영택은 1장 제목을 ‘조선의 잔 다르크’로 뽑고 이렇게 끝을 맺었다.

관순은 어린 몸이 살아서 한 일보다도, 차라리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싸우다가 마침내 그 천사와 같이 깨끗한 생명을 바쳐 죽음으로 거의 거의 죽어가는 조선의 애국적 생명을 소생케 하여 오늘의 해방과 광복이 오게 한 조선의 잔 다르크다.⁶⁵⁾

마지막 장인 ‘순국처녀의 최후’에서는 유관순이 고문에 의해 죽음에 이른 것으로 그리고⁶⁶⁾ 그녀를 ‘현대의 잔 다르크’로 명명하며 마무리했다.

조선의 혼으로 세계의 자랑거리인 현대의 잔 다르크 유관순의 시체는 왜 경찰의 감시 하에 몇 동무가 뒤를 따르는 쓸쓸한 행상으로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하였다. …… 관순의 시체는 장사하였으나 관순의 거룩한 정신은 이화의 많은 딸들의 피에 흐르고, 삼천만 동포의 피 속에 흘러서 영원히 빛나리이다.⁶⁷⁾

유관순에게 씌워진 잔 다르크라는 이미지는 오래도록 힘을 발휘했다. 1954년에 정광익은 잔 다르크와 유관순의 일대기를 함께 엮은 『잔 다르크와 유관순』을 출간했다. 유관순에 관한 서술은 1장의 제목을 ‘조선의 잔 다르크’에서 ‘우리의 잔 다르크’로 바꾼 외에는 전영택의 『순국처녀 유관순』과 똑같았다.

그런데, 1960년대부터는 유관순을 다루는 전기나 소설 중에 일본의 만행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녀의 삶에 주목하는 작품이 등장했다. 소설가 박화성은 1960년 1월부터 9월까지 유관순을 주인공으로 하는 장편소설 ‘타오르는 별’을 《세계일보》에 연재했다. 유제한의 소장 자료와 증언, 전영택의 전기에 덧붙여 직접 병천으로 답사하고 유관순의 친척과 이웃, 선생과 친구들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이 소설은 유관순의 삶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 그럼에도 박화성은 ‘작가의 딸’에서

64) 전영택(2015), 위의 책, 9쪽.

65) 전영택(2015), 위의 책, 19쪽.

66) 전영택(2015), 위의 책, 82쪽.

67) 전영택(2015), 위의 책, 84-85쪽.

‘서럽고 짧은 유관순의 생애’를 다룬 “이 소설이 요새 점점 풀어져가는 애국심과 젊은이들의 사기에, 야심에 경중이 된다면 나의 사명은 이루는 것이다”라며 교훈적 효과를 기대했다.⁶⁸⁾ 잔 다르크라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유관순을 잔 다르크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고함을 알 수 있다. 1971년에는 정요섭이 「한국의 잔다크」라는 제목으로 유관순의 전기를 기술했다. 그녀의 희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찬양했다.

이제 그녀는 세상을 떠났으나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거룩한 희생과 사랑을 바친 가장 뛰어난 애국자요 강철의 투사이며 독립만세의 화신이며 3·1 운동을 상징하는 정화이기도 하다.⁶⁹⁾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제시기를 살아야 했기에 드러나지 않았던 유관순의 저항과 희생의 역사가 해방과 함께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와 같이 해방이 가져다준 극적인 발견과 함께 그녀를 사지로 몰아넣은 일본의 만행에 모두가 분노했다. 당시 반일 정서는 남궁월이 《영화시대》에 연재한 「순국소녀 유관순전」의 첫마디에 잘 나타나 있다.

신성한 단군의 천자만손 우리 삼천만 겨레는 독사와 같은 무서운 강도인 왜적 일본의 식민지 노예 정치 밑에서 36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러가는 그동안 두고 빼지런 압박과 피맺힌 착취를 받아온 천추만대 영원불멸의 혈한사(血恨史)를 진정한 조선사람이라면 뜨거운 눈물이 없이는 회고할 수 없을 것이다.⁷⁰⁾

해방 직후 반일 정서는 윤석중이 1946년에 쓴 「사라진 일본기」라는 동시의 가사인 ‘일본기를 보면 일본말이 생각난다. 일본기를 보면 전쟁이 생각난다. 일본기를 보면 거짓말이 생각난다.’에 드러나는 것처럼 강렬했다. 그래서 유관순이 성고문으로 죽었다든가, 죽은 후 시체가 훼손되었다는 등의 극단적인 서사가 진상과 무관하게 널리 유포될 수 있었다.

유관순의 저항과 희생에 반일정서를 투영하던 사회 분위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역사적 사실에 다가가고 유관순의 희생이 갖는 민족사적 의미를 짚는 방향으로 변화해 갔다. 또한, 유관순을 순국처녀라 호명하는

68) 서정자 편저, 『박화성문학전집』 9(푸른사상, 2004), 24쪽.

69) 서정자 편저(2004), 위의 책, 72-73쪽.

70) 남궁월, 「순국처녀 유관순전(제1회)」, 《영화시대》, 1948년 2월호, 40쪽.

문화도 1980년대를 거치면서 사라졌다. 순국소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게 되었다. 이제 유관순은 순국처녀도 잔 다르크도 아닌 열사로 불린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열사로 불린 것일까? 열사라는 용어는 일제시기에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비롯해 독립운동 진영에서 흔히 쓰던 말이었다. ‘혁명열사’, ‘애국열사’, ‘순국열사’ 등의 용례로 쓰였다. 애국열사, 순국열사는 미군정이 1946년 2월 21일에 3월 1일을 경축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내놓은 ‘경축일 공포에 관한 건’에도 등장했다.

이 날은 대한 독립의 대의에 순사하신 애국열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봉정된 것이다 이 날에는 대한민국의 꽃같은 영광을 누릴 자유와 민권의 신대환을 창조하신 순국열사 제위를 전조와 같이 전대한 민중은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할 것이다.⁷¹⁾

해방 직후에 유관순을 제일 먼저 열사로 추앙한 것은 창작 판소리 ‘열사가’였다. 해방을 전후해 박동실이 만들었다고 하는 ‘열사가’에는 ‘이준열사가’, ‘안중근열사가’, ‘윤봉길 열사가’, ‘유관순 열사가’ 등 4개의 판소리가 포함되었다. ‘유관순 열사가’는 이준(4쪽), 안중근(2쪽), 윤봉길(4쪽)에 비해 매우 상세한 내용으로 유관순의 생애를 읊었다.⁷²⁾

유관순을 열사로 호명하는 문화는 1960년대를 거치면서 확산되었다. 1959년에 유관순의 오빠인 유우석을 인터뷰한 기사의 제목은 ‘열사의 후예들’이었다.⁷³⁾ 1966년에 유관순 추도식을 주최한 단체는 박화성이 회장으로 있는 유관순열사선양회였다.⁷⁴⁾ 기념사업 단체 이름에 열사가 붙었던 것이다. 1986년 10월에는 이영섭, 태완선, 전예용, 송지영, 이병주 등 각계 인사 50인을 발기위원으로 해서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를 창립했다. 1947년에 발족한 유관순기념사업회가 1960년대 중반 이후 별다른 활동 없이 해체되었다가 재발족한 셈이었다.⁷⁵⁾

그런데, 1995년에 민족사바로찾기국민회의에서 내놓은 『의사와 열사들』에 따르면, 의사는 “성공 불성공 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무력으로써 의거를 행한 이”를 가리킨다. 반면에 “비록 의거를 행하지는 않았다

71) 「경축일 공포에 관한 건」, 《미군정청 관보》, 1946년 2월 21일자.

72) 「열사가」, 『판소리학회지』 제3권(1992), 361-369쪽.

73) 「열사의 후예들(3) 유관순양의 오빠 우석씨」, 《동아일보》, 1959년 11월 25일자.

74) 「유관순열사 46주기」, 《경향신문》, 1966년 10월 12일자.

75)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재발족」, 《조선일보》, 1986년 10월 8일자.

할지라도 그 열렬한 뜻을 굽히지 않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던짐에까지 이른 이"가 열사이다.⁷⁶⁾ 무력 의거의 실행여부를 의사와 열사의 구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유관순은 열사에 해당된다. 얼마 후 《조선일보》는 '유관순 의사'라는 표현이 들어간 기사를 내보냈는데, 독자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았다. 국가보훈처에 문의한 결과, '의사와 열사는 모두 나라를 위해 지조를 지켜 목숨을 바친 사람을 뜻하지만 편의상 무기를 들고 싸우다 죽은 사람을 의사로 분류한다'는 통보를 받고 유관순 열사로 바로잡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유관순 열사'라는 호명이 '순국처녀 유관순'을 대체해 자리를 잡아갔다.⁷⁷⁾

지금 유관순의 죽음과 희생은 남/녀 구별짓기에 따라 순국처녀 혹은 순국소녀로 형상화하던 시절을 지나 열사로 호명하며 추앙받고 있다. 유관순의 죽음을 일본의 만행을 폭로하는 방편으로 삼았던 문화도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리고 이제는 유관순을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흔들리는 주체성을 가진 주인공으로 그린 소설이 등장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2012년에 손승휘가 발표한 소설 『한련화』는 유관순을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며 살아내는 여성으로 그려냈다. 유관순을 과거의 영웅으로부터 오늘의 인간이자 개인으로 소환해 현재화하고 내면화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죽음과 희생에 공감하는 '불멸'의 기념이고 추앙이라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제암리 학살 사건과 유관순의 죽음이 민족의 희생으로 기억되고 기념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과거사를 성찰하는 데 있어 기념에 앞선 절차라 할 수 있는 기억의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암리 학살 사건의 희생자 수가 29명으로 확정되고 유관순의 사망 날짜가 1920년 9월 28일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사실과 진상의 규명보다 민족적 죽음과 희생으로부터 반일정서를 확인하고자 했던 문화가 오래도록 지속되었기 때문이

76) 김윤환 외, 『독립운동총서 5: 의사와 열사들』(민문고, 1995), 4-5쪽.

77) 「바로잡습니다」, 《조선일보》 1998년 8월 25일자.

었다. 하지만, 기억에 기반한 기념이 아니라, 기념사업이 앞서고 기억 구성이 뒤따랐던 현실을 비판만 할 수는 없다. 어쩌면 그것이 식민지배를 받은 경험을 가진 한국인들이 피지배의 역사를 청산하는 나름의 방식이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개인의 죽음과 희생에 대한 기억이 사실상 소거되고 희생자 수치로만 기억되었다는 사실이다. 3·1 운동의 희생자는 모두 이름이 있었고 삶이 있었다. 지금 우리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남겨진 자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살피지 않는다. 100년 전의 일임에도 우리는 3·1 운동이라는 집합기억 속에 그들을 숫자로 기억하고 그 숫자의 정확성을 따질 뿐이었다. 또한 학살 현장들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다. 민족 전체가 식민지배의 폭압을 견뎌낸 생존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일제 시기는 물론 해방 이후를 살았을 많은 생존자들이 침묵의 세월을 보내고 세상을 떠났다. 특정 사건과 특정 인물의 죽음과 희생으로 민족서사가 형성되면서 수많은 개인의 서사가 묻혀 버린 점은 못내 안타깝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김선진, 『일제의 학살 만행을 고발한다』. 미래문화사, 1983.
- 김윤환 외, 『독립운동총서 5: 의사와 열사들』. 민문고, 1995.
- 제프리 C. 알렉산더 저, 박선웅 역, 『문화사회학』. 한울아카데미, 2007.
-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저, 이항·김재현 엮음, 『기록과 기억을 통해 본 프랭크 스코필드』. 호랑이스코필드기념사업회·한국고등신학연구원, 2016.

2. 논문

- 김기창, 「교과서에 수록된 유관순 전기문」. 『유관순연구』 17권, 2012, 10쪽.
- 김승태, 「“저팬 애드버타이저(The Japan Advertiser)”의 3·1 운동 관련 보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4권, 2016, 166-167쪽.
- _____, 「3·1 운동과 일본군의 한인 학살」. 『제노사이드와 한국근대』,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09, 109-140쪽.
- _____, 「제암리교회 사건과 서구인들의 반응」. 『한국기독교와 역사』 7권, 1997, 99-146쪽.
- 김준식, 「유관순과 잔 다르크 비교 연구」. 『유관순연구』 8권, 2006, 35-36쪽.
- 박환, 「경기도 수원·화성의 3·1 운동 관련 학살유적과 평화적 활용 방안」. 『근현대 전쟁 유적 그리고 평화』, 동북아역사재단, 2011, 162-195쪽.
- 신효승, 「일제의 ‘제암리 학살 사건’과 미국 선교사 기록의 형성 과정」. 『학림』 31권, 2018, 179-206쪽.
- 이계형, 「경기도 화성지역 3·1 운동의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학논총』 50권, 2018, 479-515쪽.
- 이덕주·김형석, 「3·1 운동과 제암리사건」. 『한국기독교와 역사』 7권, 1997, 39-71쪽.
- 임명순, 「유관순 열사의 아이콘」. 『유관순연구』 22권, 2017, 43-75쪽.
- 임종명, 「설립 초기 대한민국의 3·1 운동 전용·전유」. 『역사문제연구』 22권 2호, 2009, 227-256쪽.
- 정상우, 「3·1 운동의 표상 ‘유관순’의 발굴」. 『역사와현실』 74호, 2009, 235-263쪽.
- 정종현, 「유관순 표상의 창출과 전승」. 『1919년 3월 1일에 묻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730-776쪽.

국 문 초 록

3·1 운동으로 수만의 사람들이 검거되었고, 수천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3·1 운동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이 사실은 매우 중요했다. 3·1 운동에서의 죽음과 희생은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간이었다. 이와 같은 3·1 운동에서의 죽음과 희생의 서사는 상징적인 사건과 인물을 통해 완성되었다. 바로 제암리 학살사건과 유관순이다. 제암리 학살사건은 사건 직후 서양인들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어 세계에 3·1 운동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국내외 한국인에게는 일본의 집단학살에 대한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유관순은 해방 직후부터 3·1 운동의 저항과 희생을 상징하는 아이콘을 부상하면서 3·1 운동을 대표하는 열사로 추앙받았다. 그리고 오늘날 제암리 학살과 유관순의 죽음은 민족의 희생을 상징하는 민족서사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제암리 학살과 유관순의 죽음에 대한 민족서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껏 분석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1919년과 오늘을 잇고자 3·1 운동의 죽음과 희생을 개인화·인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억과 기념의 현재화·내면화의 단계로 나아가기에 앞서 지난 100년간 제암리 학살 사건과 유관순의 죽음이라는 민족적 희생 서사가 형성되어온 과정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투고일 2018. 9. 30.

심사일 2018. 10. 13.

게재 확정일 2018. 11. 20.

주제어(keyword) 3·1 운동(March 1st Movement), 죽음(death), 희생(sacrifice), 민족서사(national narrative), 제암리학살사건(the Je'am-ri Massacre), 유관순(Yu Gwan-sun)

Abstracts

The March 1st Movement: A National Narrative of Death and Sacrifice

Kim, Jeong-in

During the March 1st Movement, tens of thousands of people were arrested and thousands more were injured or killed. All those deaths, injuries and sufferings were considered to be the most crucial aspect of the March 1st Movement that should be remembered and commemorated. These deaths and sacrifices of the Korean people during the March 1st Movement were also deemed the very foundation of the just cause of Korea's independence.

The overall narrative recounting the history of all those deaths and sacrifices was consummated with a symbolic tragic event and a figure who embodied it: the Je'am-ri massacre and Yu Gwan-sun. The Je'am-ri massacre was made known to the Western hemisphere right after it took place, and the world came to know the Koreans' struggle of the March 1st Movement. All Koreans in and outside the country were enraged by the mass murder committed by the Japanese.

Since the liberation, Yu Gwan-sun has been hailed by all Koreans as an iconic figure in the Korean history of resistance and sacrifice. She was honored and revered as the most representative figure of the March 1st Movement. Her story, including the Je'am-ri massacre and her own death, is now considered the most definitive national narrative of Koreans' exertion and sacrifice.

This article attempts to bridge 1910 and today. To understand all those deaths and sacrifices that occurred during the March 1st Movement on a more personal, individualized level, and to relive those memories as our very own here and now, I try to recapitulate how this national narrative of Korean sacrifice—based on the Je'am-ri massacre and Yu Gwan-sun's death—has been formed and evolved in the past hundred years.